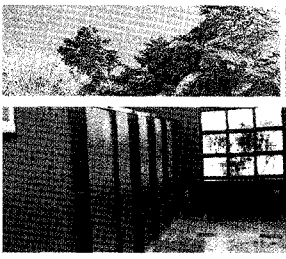

아름다운화장실운동의 방향과 大賞심사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운영국장
박 연 수

무엇이 『아름다운 화장실』인가

1999년도 아름다운화장실 대상(大賞) 심사 본선에 출품된 A도의 B호텔이 탈락되었다.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였다. 국빈이 빠지지 않고 다녀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이고 최고급 대리석에 수입자재를 쓰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아름답고 품위있는 화장실이 탈락하다니 과연 어떤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이란 말인가 하고.

그러나 심사위원들의 설명을 들은 사람은 모두 고개를 크게 끄덕인 바 있다.

즉, 『대학입시에서 수학만 만점 받는다고 합격이 되는가?』 라는 논리다. 한마디로 그 호텔의 화장실은 생리작용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최상급임에 틀림 없었다. 그러나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약자 입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다른 출품작은 비록 고급의 자재는

아니었지만 격조높은 실내외 디자인과 함께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여성들의 화장실이용 특성과 심리를 배려한 여성칸의 확대, 에티켓벨이나 위생시트의 설치, 기저귀교환대, 유아용 시트, 사용중 표시설비 등 창의적이고도 전문적인 노력이 많이 있었다.

또한 그 호텔은 공간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Rest-Room 이라는 광의의 기능을 찾아 주고자 하는 추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때는 이미 화장실의 기능이 변기 중심의 생리해결 공간을 넘어서 쾌적성을 구비한 휴게공간으로 발상의 전환이 공중화장실에 까지 파급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화장실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불결하고 냄새나는 것만 벗어난 것이 아니고 답답하고 단조로운 실내, 천편일률적이고 볼품없는 입지(위치)와 외관을 혁명적으로 탈피한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가장 눈에 띄고 접근성이 용이한 밝은 위치, 단독건물일 경우 독특하고 조형미 있는 외관, 품격과 미적 감각을 살린 실내디자인, 사각형 일변도의 공간구조의 탈피, 햇빛과 바깥경치의 과감한 실내도입, 수준있고 의미있는 벽걸이, 흰색 타일과 조잡하게 설치된 칸막이의 살벌함을 벗어난 새로운 자재와 색채의 조화 등.

문화시민운동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성숙한 문화와 시민의식으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은 물론, 보다 선진화된 수준으로 나라전체를 격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보다 굳건히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제정

전국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정부차원에서 발굴하여 공개하고 칭찬하며 모델이 되게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널리 전파하는데 이 상 제정의 뜻이 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심사의 기준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편리함 및 쾌적함, 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 시스템에 둔다. 기능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쾌적한 실내외 환경을 기본으로 하며 실내구조, 내·외관, 시설, 설비, 기기 등의 배치, 디자인과 색채감각이 편리하고 미적으로 조화로운지 여부와 장애자, 노인, 여성, 어린이 동반자 등 이용자에 대한 섬세한 정성과 배려가 있는지 등에 둔다. 세련되지 못한 조화(造花) 등 과다한 치장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상은 대상(大賞)과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고 장애인 배려, 독특한 디자인 등 특별한 장점을 지닌 특별상을 선발한다. 그리고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에 큰 관심과 성과를 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애쓴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수상시설 외곽에 부착할 수 있는 상패와 수상기관에 비치하는 상패, 그리고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와 함께 수상작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주요 일간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에 큰 관심과 성과를 보인 개인과 단체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방송 등 언론매체와 건축잡지, 생활잡지 등에 화보와 함께 소개되며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서 발행하여 전국에 배포되는 '아름다운 화장실' 책자에 수록하여 모델로 삼게 한다.

도시별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지역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大賞』 출품자격을 갖게 된다.

아무리 고상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에서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긍심과 품격을 저절로 느껴 어깨가 펴지는 법이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가진 국민은 행복하다. 행복한 국민이 되려면 쓰기도 잘 써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